

READER'S PAGE

독자에게
듣는다

“변화무쌍한 입시 분석, 진학 지도에도움 돼요”

취재 이도연 리포터 ldy@naeil.com



거주
경북 포항시
북구



자녀
없음



구독 기간
10개월

<내일교육>은 어떻게 구독하게 됐나요?

경북 포항에서 고등학교 교사로 근무 중인데 입시 동향을 꾸준히 살피던 중 진학 지원단을 통해 <내일교육>을 접하게 됐어요. 학생과 학부모 눈높이에 맞춰 복잡한 대입 제도와 교육 이슈를 쉽게 풀어주는 점이 마음에 들었어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현장감 있는 사례와 분석이 많아 큰 도움이 됐고 그때부터 구독하게 됐습니다.

독자가 뽑은 베스트 기사



수시 합격생 릴레이 인터뷰_ 덕성여대 AI신약학과 김서율

“AI로 신약 만들어 알츠하이머 치료하고 싶어요”

“학교에 자연 계열 학생이 많은데 AI와 과학을 융합한 진로에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아요. 학생부에 진로에 대한 관심을 드러낸 방법, 학교생활에서 느낀 아쉬운 점 등이 솔직하게 담겨 있어 여러 학생에게 공유했어요.”



WEEKLY THEME_ 내신 5등급제서 최대 5%?
올 1등급 예측 틀렸다

“고1 1학기를 마무리해보니 생각보다 올 1등급인 학생이 없어서 놀랐어요. 여러 학생 사이에서 2등급이 나오면 큰일 난다는 불안감이 더 커졌는데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분석한 기사가 큰 도움이 됐어요.”

〈내일교육〉을 어떻게 활용하나요?

교사로서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 학년별로 달라지는 교육 제도와 입시 흐름을 꾸준히 살펴야 하기에 모든 학년 기사를 빠짐없이 읽습니다. 올해 수시와 정시의 지원 경향은 물론이고 현 수능 체제를 마지막으로 경험하는 고2, 고교학점제와 5등급제로 혼란을 겪고 있는 고1을 중심으로요. 학생 상담이나 진학 지도에 바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교육 현장의 흐름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요.

최근 교사로서 가장 큰 고민은 뭇가요?

5등급제와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적용되면서 다른 학년에 비해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고1 학생을 볼 때 어떻게 지도해야 할지 고민이 큽니다. 평가 방식이 바뀌면서 성적 분포나 등급별 비율이 예전과 달라졌는데 시의성 있는 정보와 구체적인 사례를 빨리 파악해야 학생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거든요. 변화의 속도가 빠른 만큼 교사로서 새로운 제도에 맞는 진학 지도 방법을 늘 고민합니다.

〈내일교육〉에서 다뤘으면 하는 기사가 있나요?

올해 고3 학생의 수시를 지도하면서 느낀 점은 하향 지원이 정말 많았다는 거예요. 학생·학부모 모두 불확실한 입시 환경에서 안정적인 지원을 택하는 분위기가 뚜렷했죠. 내년에는 더 심해질 것 같아 걱정됩니다.

〈내일교육〉에 이런 변화의 원인과 흐름을 꾸준히 분석해주는 기사가 자주 실리면 좋겠어요. 실제 지원 경향과 데이터를 바탕으로 심층 분석한다면 진학을 담당하는 교사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



인터뷰에 응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내일교육〉 편집부입니다.” 어느 날 불쑥 전화를 받는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평소 느꼈던 아쉬움이나 칭찬하고 싶은 내용을 솔직하게 전해주세요.

Reporter's A/S

2026학년 수시를 분석한 최근 기사를 참고해보세요. 전형별 경쟁률 추이와 의대 지원 경향, 지역 거점 국립대 경쟁률 변화, 무전공 모집 단위의 상승세, 교대 경쟁률 급등 등의 세부 분석이 알차게 담겨 있습니다.

본지 1200호
‘WEEKLY THEME_’
2026 수시 안정 지원 가셨다!
기사 참고

